

공동관심사 나눔

1. 오늘 일정 안내

- 주일 예배 참여 : 오늘(장여/장남), 6월 20일(새창/청신/희청), 6월 27일(희망 교우, 사전 예약)
- 정기 당회 : 오늘 오후 2시, 어린이부실
- 교회 양도 물품 나눔 : 명동을 떠나며 교회 물품을 나눕니다. 기간 : 오늘까지, 물품 : 화분, 액자 등,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참고, 문의 : 진용수 집사 (010-8765-7054), 김지묵 목사(010-4943-9412)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음악선교팀 국악 찬송가 가사 모집 : 6월 30일(수)까지 연장,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참고
- 들녘농산물 판매 : 들녘 쌀 주문 받습니다. 6월 27일 전후로 새로 찼은 쌀 배달 해드립니다. (문의: 이옥희 권사 010-4872-4821)

2. 이번 주 일정 안내 : 6월 14일(월)~6월 20일(일)

- 사무실 이전 : 6월 15일(화), 희명빌딩 2층(종로구 사직로12길 25-3)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통일선교팀 : 6월 17일(목), 저녁 7시, 문화공간 ON
- 이사팀 모임 : 6월 19일(토), 향린 수양관 답사
- 성령의주일/남북화해주일 : 6월 20일(일)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생태문화선교팀 : 6월 20일(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 선교부 신학공부 모임 : 『갑과 그리핀의 과정신학-입문적 해설』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 이번 주 성서일과 : 사무엘기상 17:32-49, 고린도후서 6:1-13, 마가복음서 4:35-41

3. 이후 일정 안내

- 새창 인문공화국 : 6월 22일(화), 저녁 7시, 내수동 사무실, 온/오프라인 병행, 『한국 평화학의 탐구』(서보혁), 문의 : 유 건 교우(010-5154-9202)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 6월 23일(수), 저녁 8시, 온라인(ZOOM)
- 미래선교연구위원회 퀴어-페미니즘선교팀 : 6월 25일(금), 저녁 8시, 온/오프라인 병행
- 명동에서의 마지막 예배 : 6월 27일(일)
- 목회운영위원회 : 6월 27일(일), 오후 2시, 향우실, 온/오프라인 병행

4. 에큐메니칼 소식

- 미션효순 19주기 추모제 : 오늘 오전 11시, 효순미선평화공원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43-3),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1201-04-185740
- 사회적협동조합 길목 총회 : 오늘 오후 3시, 교회 4층
- 촛불기도회 : “아시아나케이오 투쟁 승리를 위한 목요기도회”, 6월 17일(목), 오후 5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주관 : 촛불교회
- 기독교사회운동 공동정책협의회 : 6월 28일(월), 오후 1시 30분(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 남북철도잇기 한반도평화대행진 : 4월 27일(화)~7월 27일(화), 부산-임진각(천안 통과)

5. 감사헌금

김수정(예비 신자), 주지형/황영준(감사)

온라인헌금안내 : KEB 하나은행 024-22-02085-6 향린교회(입금 시 이름/목적 명기)

<향린교인 생활실천 다짐>

1.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성서 공부, 기도, 신앙·신학서적 읽기 등 일상의 신앙훈련을 통해 사회선교의 영성을 키운다.

목 / 회 / 마 / 당

<인권과 평화의 걸림돌,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악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생명, 평화, 정의에 순종하는 진정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고백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군사적 대결과 갈등의 냉전 시대, 야만적 분열과 폭력의 분단상황에 기생하며 수많은 바극을 양산하는 죄와 죽음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미 지난 1999년 제84회 총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한 이래 계속해서 그 입장을 확인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최단 시간 10만인 서명을 달성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발의를 앞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 아래에서 바리새파 율법 교사와 대제사장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정죄의 칼날, 구속의 사슬로 기능하는 악법으로 뒤바꾸어 활용했습니다. 유대 권력과 그 부역자들은 일그러진 유대교 정신과 율법을 비판하고 그 허상을 폭로한 스데반을 잔인하게 처형합니다. 로마 식민 권력에 기생하여 연명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민족과 하나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위선자들은 평화와 공존을 외치고 사랑과 포용을 희망하는 이들을 정죄하고 구속하기 위해 종교와 이념의 무기를 휘둘러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를 감시, 규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불의한 권력에 대항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정당한 활동을 막기 위한 감시와 처벌의 칼날이었을 뿐입니다. 이미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적 요소를 지적하고 폐지를 권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폐지를 권고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존립 이유로서 항상 거론됐던 북한 노동당 규약의 해당 조항마저 폐지된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새 당규약을 채택하며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발전 실현”으로 대체했을 뿐만 아니라, ‘북 주도 혁명 통일론’을 뜻하는 기존 규약의 여러 문구를 대폭 삭제·대체·조정했습니다. 기존 노동당 규약 서문의 “조선노동당은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는 문구가 사라졌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룩”이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노동당 규약 본문의 “당원의 의무”(4조)에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대체 표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남과 북의 공존을 지향하는 역사적 과제를 가진 오늘날 국가보안법은 더는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위와 같은 역사 인식과 신앙고백 위에서 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할 악법입니다.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기함으로써 평화의 공존과 인권의 보장을 위한 여정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